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내 치료 논거 세부 분석

김지현*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내용 구성과 음악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전반적 특성, 중재내용의 특징, 치료 논거 기술 특징 및 적절성 등으로 구분된 기준을 통해 연구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KCI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 33편이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23편을 선정하여 2차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편을 선별하여 기술된 치료 논거의 적절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논거 기술에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음악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중재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기 어려운 연구들이 많았다. 또한 음악의 선곡 기준이 목표활동에 대한 음악 요소의 사용논거보다는 대상자의 선호도나 친숙도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시 중재기술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적, 음악적 논거가 보완되어야 하고 중재 목표에 따른 타당한 이론적 근거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치료적 논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중재의 임상적 자료를 제공하고, 추후 연구에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노인, 음악중재연구, 치료논거, 고찰

*주저자 및 교신저자: 아트기버 사회적 협동조합 음악치료사, 음악중재전문가(KCMT)
(wlgus12022@naver.com)

I. 서론

국내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hoi, 2016).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8), 노화에 따른 기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에 노인관련 학문분야들에서 다각적인 접근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Choi, 2016), 국내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노인대상 음악치료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노인대상 고찰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수의 양적증가와 함께 다양한 음악활동이 시도되고 있으며 치료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수치화된 연구도구의 사용하는 중재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Kim, 2014; Kwon, 2009; Lee & Kim, 2016). 이러한 양적 보고의 증가 이 중 많은 연구들이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활동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시도되고 있으나 음악의 치료적 사용에 대한 타당한 논거 제시나 치료효과성에 대한 원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아 음악치료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McDermott, Crellin, Ridder, & Orrell, 2013).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제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대상군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시행되어(McDermott et al., 2013; Wang, 2017), 중재의 치료원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용되는 음악의 선곡 논거가 주로 대상자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중재 목표와 음악 논거의 관련성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Lee & Kim, 2016). 중재 활동에서도 대상자의 친숙도가 기준이 되어 다양한 음악 활동이 시행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가창활동을 주요하게 시행하고 있어(Lee & Kim, 2016), 중재에 필요한 논거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음악중재연구에서 사용된 음악과 중재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Chong, 2015; Robb, Carpenter, & Burns, 2011). 특히 연구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도 치료도구로서의 음악이 갖는 고유한 효과성을 규명하고 중재 방법 분석을 통해 중재 개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노인 대상 음악중재 고찰연구들의 경우 전반적 연구 동향을 다루거나 음악중재의 효과성 유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적용된 음악중재의 치료적 논거 및 원리와 같은 중재효과의 이론적 기반을 확인하는 연구가 미비하여(Kim, 2014; Kwon, 2009; Lee & Kim, 2016), 중재연구의 전문성과 학문적 성장을 위해 음악중재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에 제시된 음악 및 중재방법의 논거와 중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중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향후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내용적 분석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내 치료논거 기술 내용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중재내용의 특징과 제시된 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 음악치료연구가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연구를 위해 제시되어야 할 개선 방향과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노인 음악중재 방안과 중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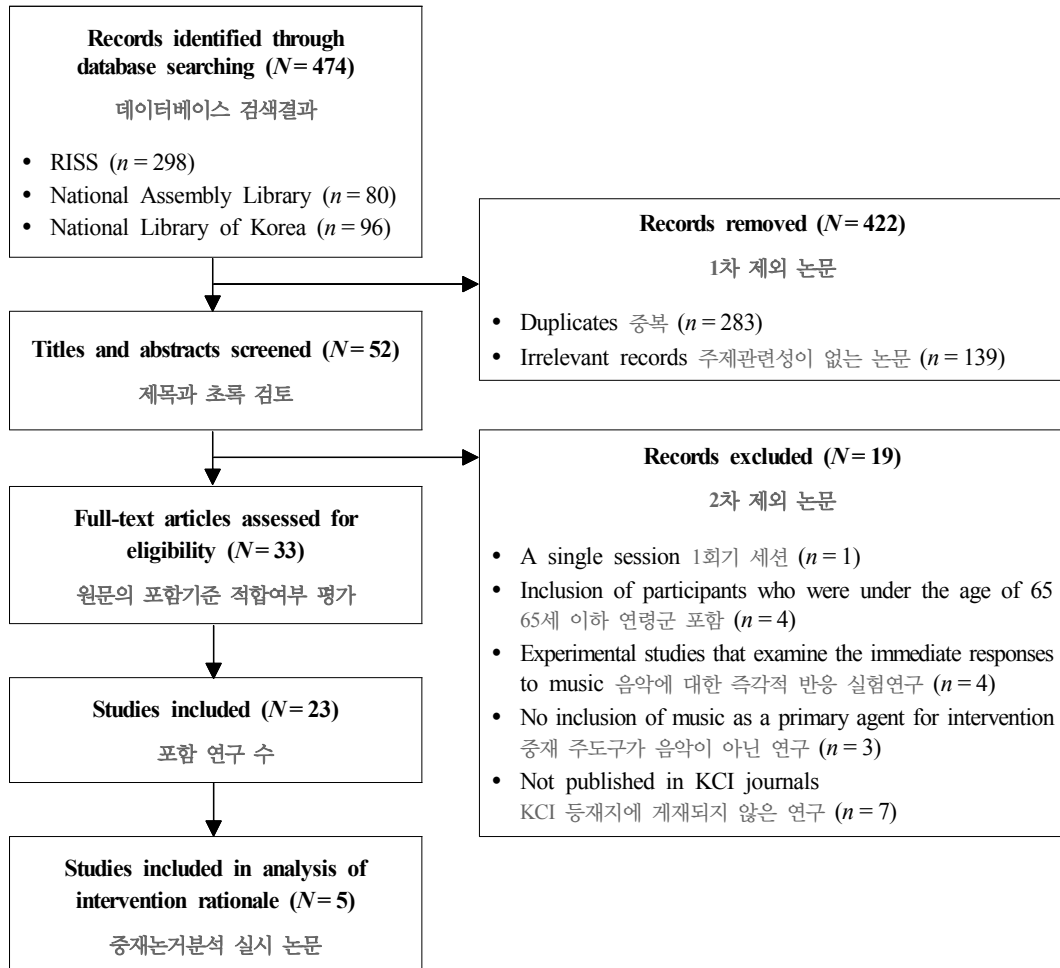
1. 분석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등록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 연구로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국회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교보문고 스킨라를 통해 진행하였다.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중재내용과 관련하여 ‘음악치료’, ‘음악중재’, ‘음악활용’, ‘음악감상’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 중재연구를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된 474편의 논문 중에서 중복되거나($n = 283$), 관련이 없는 연구($n = 139$)를 1차 제외하였고, 이후 연구의 초록 및 내용확인을 통해 단회기로 진행된 연구는 효과성 비교에 제한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대상자의 연령이 노인기준에 맞지 않은 연구 등($n = 19$)을 2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분석 대상 연구로 33편이 선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검토해 설정한 음악중재 구성 평가기준과 논거기술 평가기준에 따라 23편의 2차 분석 대상 연구를 선정 후 음악중재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연구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5편을 선정하여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의 선정 과정은 <Figure 1>과 같으며, 선정된 논문 목록은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2. 분석 항목

1) 연구의 전반적 특성

국내 노인대상 음악중재 연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의 기초정보(연도, 저자명,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진단명 및 연구 참여자의 정보), 연대별 현황,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 학술지의 학문적 분야,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 연구 설계방법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1> Flow chart of literature search

<그림 1> 분석 대상 연구 선정 절차

2) 중재 내용 분석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에 대한 전문성 있는 중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Robb 등(2011)의 연구와 Chong, Lim, & Hwang(2018)의 리듬 논거 고찰연구에서 사용한 중재 질 평가항목, Chong(2015)의 음악치료 중재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2차적으로 분석할 연구중재연구를 선별하였다. 해당 평가항목은 음악치료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중재는 음악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역동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4가지의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Chong, 2015). 이에 연구자는 4가지 조건

을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각 항목에 부합할 경우 ‘그렇다(1점)’, ‘아니다(0점)’로 평가했고, 총 4문항 모두에 ‘그렇다’로 평가될 경우 2차 분석을 위한 연구로 선별했다. 중재별 평가항목은 <Table 1>과 같다.

선별된 2차 분석대상 연구에서는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정보(중재 장소, 회기수, 주기, 시간,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참여자의 참여 형태), 연구변인의 목표영역, 진단명에 따른 목표영역, 목표영역별 음악중재의 특징, 연구 대상자 진단명에 따른 음악중재 특징, 목표영역별 사용 음악, 목표 영역별 세부 종속 변인 및 측정도구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Items of Quality Assessment of Included Studies

<표 1> 2차 분석연구 선별을 위한 연구 내 중재 평가 항목

| Category 범주 | Items for assessment 평가항목 | Evaluation 평가 |
|---------------------------------|---|------------------|
| Intervention provider 중재 제공자 | Was the intervention provider music therapist? (Was the provider’s academic background in the field of music therapy?) 본 연구 중재제공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가? | Yes / No |
| Participants 중재 대상자 | Was th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i.e., age and diagnosis) accurately reported? 본 연구에는 중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연령, 진단명)가 기술되어 있는가? | Yes / No |
| Intervention component 중재 구성 | Was applied intervention relevant and appropriate for music therapy goals? Was the rationale for activities reported? 본 연구에는 중재 내용이 치료 목표에 부합하게 진행되는가? 또한 활동에 대한 논거가 기술되어 있는가? | Yes / No |
| Music-related aspects 음악적 경험 | Was the rationale for music selected reported? 본 연구에는 음악선곡에 대한 논거가 기술되어 있는가? | Yes / No |

3) 음악중재 내 논거의 적절성

본 연구에서 논거의 적절성이란 음악중재 내 치료적 논거가 목표영역과 대상군의 진단명, 선곡된 음악장르에 따라 기술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2차 분석대상 연구에 기술된 논거의 특징 및 치료적 논거 기술이 적절한 연구를 선별하고자 평가 기준을 고려하였다. 선별기준은 Lee(2019), Robb 등(2011)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 Chong(2015)의 음악치료 중재의 핵심 내용, 노인 대상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논거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논거가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표 연결성, 음악을 치료적 목적으로 적용했는지 여부인 치료적 적용, 내담자의 진단적 특성을 중재에 반영했는지 여부인 진단적 특성 반영 여부 등에 관해 각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평가기준 역시 음악치료전문가 1인과 음악치료학과 교수

1인의 검증 및 확인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 일차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전체적인 치료적 논거 특성을 파악한 후 연구별 중재내용 평가를 했다. 평가문항은 총 3가지 영역으로 각 영역별로 1-3점으로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최하점으로 평가된 연구는 2점이었고, 3영역 중 2개의 영역에서 3점을 받은 5개의 연구가 상위의 연구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에 나타난 치료논거를 목표영역, 대상자의 진단명, 사용된 음악 장르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기재되어 있다.

<Table 2> Criteria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Intervention and Its Rationale

<표 2> 음악중재 논거 평가 기준

| Category 범주 | Criteria 기준 | Score 점수 |
|---|---|-------------|
| Relevance to goals 목표와의 연결성 | Statement on applied music activities in details and its rationale and expected outcomes in relevance to target goals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의 구체적인 음악활동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대상자 행동의 변화와 이점을 중재 목표와 연결하여 논거 기술한 경우 | 3 |
| | Statement on applied music activities and its rationale in general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논거 기술한 경우 | 2 |
| Therapeutic use of music 음악의 치료적 적용 | Statement on applied music activities but lack of relevance of the activities to target goals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을 중재 목표영역과 관련 없이 실행방법을 기술한 경우 | 1 |
| | Statement on the rationale for applied music in relevance to its specific features/elements and target goals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 각 회기에서 사용한 음악 특성 및 요소와 목표영역을 연결하여 논거 기술한 경우 | 3 |
| | Statement on the rationale for applied music in terms of general features of music and target goal areas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음악활동에서 사용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목표영역과 관련지어 기술한 경우 | 2 |
| | Statement on the applied music and reasons for selection but lack of statement on specified rationale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음악활동에서 사용한 음악 선택기준을 기술한 경우 | 1 |
| Consideration of diagnostic features of participants 진단적 특성 반영 | Statement on consideration of diagnostic features and level of functioning of participants when implementing intervention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에서 내담자의 진단적 특성과 기능수준을 고려한 활동 진행 내용을 논거에 기술한 경우 | 3 |
| | Statement on diagnostic features of participants but lack of statement on the relevance of the features to intervention implemented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에 참여한 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른 특성을 기술한 경우 | 2 |
| | Statement on diagnosis of participants but lack of statement on diagnostic features and the relevance of the features to intervention implemented 연구자가 실행한 중재 내용의 음악활동에 참여한 대상자의 진단명을 기술한 경우 | 1 |
| | | |

Ⅲ. 연구 결과

1. 연구의 전반적 특성

1)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의 특성

본 연구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함된 1차 분석 연구는 총 33편이다. 분석 결과,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경우가 28편(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음악치료는 5편(15.2%)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에 따라 중심점이 되는 2011년 기준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2011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 수가 2011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 수 보다 약 3배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속적으로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이 보고된 연구에서는 70대가 11편(3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평균 연령이 보고되지 않은 연구에서는 60-90세가 5편(15.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술지의 학문적 분야 분석 결과, 음악치료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6편(18.2%)으로 모두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치료 외 분야의 학술지에서 게재된 논문은 27편(81.8%)이었으며 해당 학술지의 학문적 배경은 인문사회, 인문과학, 노인복지 등이 있었다.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진단명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치매노인이 9편(27.3%), 비임상대상군 중 일반노인이 6편(1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상대상군의 연구는 33편 중 18편(54.5%), 비임상대상군은 15편(45.5%)으로 비임상대상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의 연구 설계방법은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연구가 24편(72.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실험통제집단 사전사후 연구 24편 중 실험집단의 처치 후 동일한 처치를 제공하는 대기통제집단을 설계한 연구가 3편으로 확인되었고, 실험통제집단에게 음악치료 외 다른 처치를 제공한 연구는 9편, 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연구는 4편, 실험통제집단 처치에 대한 기술이 없는 연구는 8편으로 확인되었다. 1차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2. 중재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대상 음악중재에 대한 전문성 기술 수준 확인을 위해 음악치료 분야의 중재 진행 시 필수적인 조건을 모두 기술하고 있는 연구만을 선별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평가항목에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 중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중재 활동에 대한 논거 및 음

악선곡 논거 기술 여부가 포함되었다. 평가 결과, 1차 분석연구 33편 중 4점을 부여받은 연구는 총 23편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중재가 진행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연구는 총 8편(34.8%)으로 대부분 대상자의 생활 시설에서 이루어졌으며, 중재가 진행된 장소를 기록하지 않은 연구는 총 15편(65.2%)으로 장소를 기록하지 않은 연구의 수가 더 많게 확인되었다. 세션 형태는 그룹으로 진행된 연구가 총 20편(87.0%), 개인으로 진행된 연구가 총 3편(13.0%)이었으며 회기수는 10회기 이하로 진행된 연구 5편을 제외하고 모두 10회기 이상으로 나타났고, 주기는 주 2회가 총 14편(60.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목표영역별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영역 연구가 13편(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명에 따라 목표영역을 분류하였을 때, 치매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인지영역 연구가 5편 중 3편(6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뇌졸중 노인은 신체영역 연구가 3편 중 2편(66.7%), 노인성질환 노인은 정서영역이 1편,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정서영역이 2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비임상대상군은 정서영역연구가 8편(61.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활동 형태를 분석하였을 때, 인지영역과 언어영역에서는 가창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정서영역에서는 가창활동과 연주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신체활동에서는 악기연주활동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모든 목표영역에서 가창활동이 17편(34.0%), 악기연주 활동이 14편(28.0%)으로 가장 많이 활용됨이 또한 확인되었다. 음악활동 내용을 1가지만 활용한 연구는 23편의 연구 중 7편(30.4%)이었고, 나머지 16편(69.6%)의 연구에서는 2가지 이상의 세부음악활동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군 진단명에 따른 음악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치매노인과 경도인지장애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가창과 연주활동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노인성질환 노인 연구에서는 가창 활동이 많이 활용되었다. 비임상대상군 중 일반노인과 독거노인에게는 가창활동이 많이 활용되었으며 시설거주 노인에게는 연주의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을 목표영역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인지영역에서는 대중음악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언어영역에서는 민요를 많이 활용하였다. 정서영역에서는 대중음악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신체영역에서는 민요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사용음악 중 기타에 분류된 음악은 언어영역 중재를 위한 음악요소 활용과 찬팅을 위한 친숙한 전통멜로디 활용, 또한 '내담자 선호곡'으로 기술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각 목표 영역의 종속변인 및 사용한 측정도구를 분류하여 분석 결과 정서영역(73.7%)의 종속 변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우울이 8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측정도구로는 GDS(Geriatric Depression Sal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인지영역 5편에서는 모두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언어영역에서는 음성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음성

프로그램인 Praat이 사용되었으며, 신체영역에서는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특정 신체 및 동작과 연관되는 측정 도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차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3>에 제시되어 있다.

3. 음악중재 내 논거의 적절성

1) 2차 분석연구 내 논거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 내 기술된 논거의 특성과 목표영역과 대상군의 진단명, 선곡된 음악장르에 따른 논거의 적절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설정한 음악중재 내 논거 평가 기준은 목표와 음악활동의 연결성 기술 수준, 음악의 치료적 적용 기술 수준, 대상자의 진단명과 기능 수준 반영한 활동 진행사항 기술 수준 총 3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별로 1점부터 3점까지 총 3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3가지 항목 별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항목인 ‘목표와 음악활동의 연결성 기술 수준’중 3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15편(65%), 2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8편(35%)으로 비교적 모든 연구에서 해당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항목인 ‘음악의 치료적 적용 기술 수준’중 3점 해당하는 연구는 8편(35%), 2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9편(39%), 1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6편(26%)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인 ‘대상자의 진단명과 기능 수준 반영한 활동 진행사항 기술 수준’중 3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3편(13%), 2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4편(17%), 1점에 해당하는 연구는 16편(7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2차 분석 대상 연구에서 ‘목표와 음악활동의 연결성 기술 수준’을 기술한 연구의 수가 가장 높았고 ‘대상자의 진단명과 기능 수준 반영한 활동 진행사항 기술 수준’을 기술한 연구의 수가 가장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 분석 대상 연구 중 본 연구자가 설정한 평가 상위 논거 기술 연구 기준인 각 항목 평가 점수 최하점이 2점이며,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항목에서 3점을 부여받은 연구는 5편으로 모두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 음악치료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2011년 이후에 발행된 연구로 확인되었다.

2)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

치료 논거 기술 내용 평가에서 평가 상위 연구로 선정된 연구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평가 상위 연구 5개 연구는 비임상대상군 대상 연구가 2편, 뇌졸중 노인 대상 연구가 2편, 치매노인 대상 연구가 1편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단명이 있는 대상군 연구와 비임상대상군 연구의 대상자에 따른 논거 기술 수준에는 상이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군이 뇌졸중 노인인 Jung(2015), Shin & Kang(2016)의 연구에서는 뇌졸중 노인의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활동논거를 제시하였

는데, 편 측 손만으로 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거나 대상자의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의 높이와 음량 조절이 가능한 전자 키보드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군이 치매노인인 Kim & Jung(201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인 우울감을 고려하여 활동 진행 방향을 동질성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활동 참여를 유도함을 기술하였다. 반면 연구 대상군이 비임상대상군인 Lee & Kim(2011), Kim & Kang(2019)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아닌 노인의 노화에 따른 수준이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활동 논거를 기술하여 목표영역과의 연결성을 제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진단명이 있는 대상군의 연구에서는 비임상대상군 대상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과 이를 고려한 활동 내용 사항을 논거에 기술함을 확인하였다. 세부내용은 <Table 3>에 기술하였다.

3) 목표영역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

치료논거 기술 내용 평가에서 평가 상위 연구로 선정된 연구를 대상으로 목표영역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신체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언어영역, 인지영역, 사회영역을 제외한 정서영역 연구 5편, 신체영역 연구 1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표영역이 신체영역인 Shin & Kang(2016)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손기능 향상을 위해 메트로롬 속도에 맞춰 MIDI건반 연주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유도되는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손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하며 악기연주와 신체적 목표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Shin & Kang, 2016).

목표영역이 정서영역인 Lee & Kim(2011)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감소를 위해 타악기 연주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연구의 연구자는 논거 기술 시 음악요소를 핵심으로 기술하였다. 타악기 연주 활동 시 동일한 리듬 연주를 통해 그룹원 간의 동질감 확인 및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서로의 지지적 관계를 이끌어내어 정서적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Lee & Kim, 2011). 이와 같이 악기연주 활동을 진행하였음에도 신체영역에서는 음악활동에 집중하여 논거 기술, 정서영역에서는 음악요소에 집중하여 논거 기술하는 등 목표영역별로 연구자가 제시한 논거의 방향성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서영역 연구 내 논거를 살펴보면, Kim & Jung(2013)의 연구에서는 선곡된 대금 창작곡의 이중적인 특징을 통해 초반에는 동질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집단원의 우울한 기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중립성의 원리와 이질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편안함과 행복함과 관련된 기억들을 불러일으켜 긍정적인 기분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Kim & Jung, 201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4) 사용한 음악 장르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

치료 논거 기술 내용 평가에서 평가 상위연구로 선정된 연구를 대상으로 사용한 음악 장르 선택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 나타난 장르에 따라 국악, 대중가요, 동요, 민요, 음악요소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국악, 동요, 음악요소를 사용한 연구는 각각 1편(20.0%)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가요를 사용한 연구는 2편(4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장르 선곡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음악 내적요소에 따른 선곡 논거를 기술한 연구는 1편(20.0%), 음악 외적요소에 따른 선곡 논거를 기술한 연구는 4편(80.0%)으로 나타났다.

음악장르 선곡 기준에 음악 내적요소를 기술한 연구는 1편으로 정서영역을 목표로 한 연구였다. 음악요소를 활용한 Lee & Kim(2011)의 연구에서는 음악요소를 활용한 타악기 그룹연주는 신체적 움직임을 조절하여 긴장이완 및 안정감을 제공하며 리듬 템포변화를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감정발산 및 정서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음악요소를 활용하였음을 논거에 기술하였다.

음악장르 선곡 기준에 음악 외적요소를 기술한 연구는 4편이었다. 국악장르를 활용한 Kim & Jung(2013)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인 노인세대들은 서양음악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악을 중재에 활용해야 함을 서론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각 회기에서 사용한 국악음악의 템포, 강약, 악기음색의 특징에 따라 유도되는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목표의 연결성을 함께 기술하였다. 또한 사용한 국악악기의 음색적 특징에 따른 논거를 기술하였다. 대중가요장르를 활용한 Jung(2015)의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선호음악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집단이 20대였던 시절의 대중가요를 선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2도 음정의 음계적 진행으로 시작된 곡의 도입부는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폭이 좁은 음역대 내에서 반복되는 선율은 대상자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등 회기 별 사용한 대중가요의 음악요소에 따른 논거를 기술하였다. 동요 장르를 활용한 Shin & Kang(201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익숙한 동요를 선곡했는데, 익숙한 곡을 경험할 때 자연스러운 신체반응이 가능하며 곡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음악 장르를 활용한 연구이지만 특정 음악 장르에 따른 목표활동의 이점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장르 선택 이유 중 음악 외적요소 음악선곡 기준에 공통적으로 노인의 선호도와 익숙성, 친숙성을 기술함을 확인하였다. 음악활동에 사용한 음악 장르 별 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4>와 같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Assessed With High Quality of Statements on Rationale

<표 3> 평가 상위 연구 내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

| Diagnosis | Author(year) | Goal | Activities |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Rationale of activities in relevance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 Assessment |
|---|--------------------|--|--|---|--|---|
| 진단명 | 저자(년도) | 목표 | 활동내용 | 대상자 특성 | 특성에 따른 논거 | 분석 결과 |
| 뇌졸중 | Jung(2015) |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 Song discussion | Limitation in writing | The investigator wrote down the created lyrics for participation during song writing | Statement on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were relevant to diagnostic features of participants |
| | 정용리(2015) | 우울, 재활동기 | 노래 가사 토의 프로그램 | 글씨 쓰기에 제한 | 노래 만들기 활동 시 연구자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노래 가사 기록함. |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 고려한 활동 진행 방안을 기술함. |
| Stroke | Shin & Kang (2016) | Hand function | Therapeutic instrument playing using MIDI-keyboard |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hile seated in wheelchair or chairs | The investigator used portable electronic keyboard that can be adjusted to different height to suit seated positions of participants | Statement on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were relevant to diagnostic features of participants |
| | 신미희, 강경선 (2016) | 손기능 | MIDI 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 | 고정된 의자, 휠체어에 앉아서 참여 |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의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한 전자 키보드 사용. |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 고려한 활동 진행 방안을 기술함. |
| Dementia | Kim & Jung (2013) |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 Group music therapy (listening, movement to music, and instrument playing) | The state of being lethargic, inactive, and depressed | The investigator matched the depressive mood of participants with music based on the iso-principle | Statement on implementation of activities were relevant to current emotional states of participants |
| | 김현정, 정재원 (2013) | 우울, 삶의 질 | 그룹 음악치료 (감상, 동작, 연주) | 삶의 의지가 없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상태 | 음악의 요소에 따른 동질성 원리를 적용하여 집단원의 우울한 기분을 먼저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자의 현재 상태 고려한 활동 진행 방안을 기술함. |
| Older adults without clinical diagnosis | Lee & Kim (2011) | Depression and self-esteem | Group percussion playing | Decline in cognitive and motor functions due to aging | The investigator facilitated participants to create music using simple and easy rhythm patterns, which would affect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older adults | The applied music activities were stated in relation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goal areas |
| | 이경진, 김수지 (2011) | 우울감, 자아존중감 | 타악기 그룹 연주 프로그램 | 노화로 인해 인지능력 및 운동기능 쇠퇴 | 단순하고 쉬운 리듬만으로 음악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우울과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함. | 노화에 따른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난이도를 기술하였으며 목표와 연관 지어 기술함. |
| 비임상 대상군 | Yoon & Park (2018) | Self-integrity | Song autobiography | Needs for emotional resources to accept his or her life and aging process | Reminiscence through music helped participants to review their lives in the past and deal with conflicts inherent in life | The statement on applied music activities is relevant to goal areas but not related t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
| | 윤영미, 박혜영 (2018) | 자아통합감 | 노래자서전 음악활동 | 삶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 심리적 자원의 영향이 중요한 시기 | 노래를 통한 회상은 과거를 재조명하도록 하며, 삶의 내재적 갈등을 극복하도록 함. | 연구 대상자의 특성이 아닌 전반적인 노화에 따른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이에 따른 활동과 목표의 연결성을 기술함. |

<Table 4> Statement on Rationale in the Studies Assessed With High Quality

<표 4> 평가 상위 연구 내 목표영역에 따른 논거 기술 내용

| Goal area | Author(year) | Target goal | Type of activity | Contents of activities | Stated relevance of activities to target goals | Keywords |
|-----------|--------------------|--------------------------------|--|---|--|--|
| 목표영역 | 저자(년도) | 세부목표 | 활동형태 | 활동내용 | 활동과 목표와의 연관성 | 핵심 단어 |
| Physical | Shin & Kang (2016) | Hand function | Instrument playing | Playing single notes, scales, and arpeggios on the keyboard matching to the tempo of metronom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r auditory stimulus facilitated the execution of target movements by helping participate to anticipate motor behaviors - Repetitive finger movements enhanced coordination between fingers and lead to improved hand function | Auditory stimulus, MIDI keyboard, and finger movements |
| | 신미희, 강경선 (2016) | 손기능 | 연주 | 메트로놈 속도에 맞춰 MIDI 건반으로 단음, 스케일, 아르페지오 등으로 연주하는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청각적 자극을 통해 운동적 반응을 예측하도록 하여 움직임 촉진시킴. - 반복적인 손가락 움직임을 통해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손기능을 향상시킴. | 청각자극, MIDI건반, 손가락움직임 |
| Emotional | Lee & Kim (2011) | Depression and self-esteem | Instrument playing | Playing percussion instruments to music in which various musical elements are used to induce changes in moo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induces controlled body rhythm and mood shift - Provision of regularly-paced beat and playing identical rhythm patterns with group members helped participants to feel group cohesiveness and supportive bonding, which induces emotional changes | Rhythm, auditory stimulus, and rhythm playing |
| | 이경진, 김수지 (2011) | 우울감, 자아존중감 | 연주 | 정서 변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음악요소활용 타악기 연주와 그룹 타악기 연주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의 청각적 자극을 통한 신체리듬 조절 및 기본적인 유도함. - 일정한 박과 동일한 리듬 연주를 통한 그룹간 동질감을 확인, 지지적 관계 형성으로 인해 정서적 변화를 이끔. | 리듬, 청각자극, 리듬연주 |
| 정서 | Kim & Jung (2013) |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 Listening, movement to music, and instrument playing | Group music activities (e.g., movements, facial massaging, and listening to music) in which Korean traditional music are us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ood of music selected matched the current depressive mood of participants based on the iso-principle - Changes in tempo and rhythm of music gradually altered the current mood and induce desired positive and stable mood | Musical elements such as tempo and rhythm and depression |
| | 김현정, 정재원 (2013) | 우울감, 삶의 질 | 감상, 동작, 연주 | 구악을 적용한 그룹 음악치료 활동(동작, 얼굴마사지, 창조적 표현, 음악감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곡된 음악의 슬픈 분위기는 동질성의 원리로 작용하여 집단원의 우울한 기분과 공감하도록 함. - 선곡된 음악의 변화되는 템포와 리듬을 통해 증립성의 원리와 이질성의 원리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함. - 이를 통해 그룹원의 우울한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함. | 음악요소, 템포, 리듬, 우울감 |

<Table 4> Continued
<표 4> 계속

| Goal area | Author(year) | Target goal | Type of activity | Contents of activities | Stated relevance of activities to target goals | Keywords |
|-----------|--------------------|--|--|--|---|---|
| 목표영역 | 저지(년도) | 세부목표 | 활동형태 | 활동내용 | 활동과 목표와의 연관성 | 핵심 단어 |
| | Jung(2015) |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 Song discussion | Discussion on lyrics of popular songs from participants' young adulthoo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sight-oriented lyric discussion helped participants to discover the way to address their problems - Lyric discussion in a reconstructive level helped participants to gain positive views on the self and validate goals, drive for life, and belief. | Insight-oriented activities and reconstructive activities |
| | 정용라(2015) | 우울, 재활동기 | 가사토의 | 연구 대상자의 20대 시절 유행한 대중가요를 활용한 단계적 가사 토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찰 지향적인 활동은 가사토의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 - 재구성적 활동은 가사토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 의지, 신념을 확립하도록 함 | 통찰지향적 활동, 재구성적 활동 |
| Emotiona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ection of music that fits the time period reviewed promotes positive perspectives toward the past - Music activities helped participants to gain hope for the future, which bases the development of self-integrity - 각 회상 시기에 맞는 음악을 통한 활동을 통해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공함 - 음악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자아통합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 Reminiscence, changes in views on the past, and hope for the future |
| 정서 | Yoon & Park (2018) | Self-integrity | Listening, singing, and reminiscence, music creation | Music listening for singing, and reminiscence, song writ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회상 및 수용을 위한 감상, 기창, 노래 가사 만들기 활동 | 회상활동, 과거 재인식, 미래에 대한 소망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대상 음악중재연구 33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3단계에 걸쳐 세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자가 설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2차 분석 대상 연구 23편을 선별하여 중재 내용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의 기술된 논거의 특징 및 치료적 논거 기술이 적절한 연구를 선별하고자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논거 기술 특징과 평가기준 상위 연구 5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대상군 및 목표영역, 사용된 음악의 장르에 따른 논거 기술의 특성을 세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상대상군이 전체의 60.6%로 비임상대상군(4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진단명은 임상대상군 중 치매노인(27.3%), 뇌졸중(21.1%), MCI(6.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이 게재된 학술지의 학문분야는 음악치료 이외의 분야가 대부분이며(81.8%), 중재연구의 특성상 실험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를 실시한 연구가 높은 비율(72.2%)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은 음악치료 연구가 임상대상군에게 초점을 맞춰 실시되고 있으며, 음악을 적용한 노인대상 중재연구에 대한 타학문 분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준실험설계 이상의 연구디자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음악중재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임상근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중재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목표영역에서는 정서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진단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진단명의 필요에 따라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정서영역의 경우 모든 임상 및 비임상대상군에 걸쳐 모두 목표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영역의 목표는 음악활동 전반이 모든 유형이 고르게 적용되는데 이는 정서각성 및 정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음악행동을 연구중재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가창은 모든 대상군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음악활동으로 음악치료대상군의 대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음악활동이 적용된 중재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 목표영역에 따른 음악치료의 중재논거 제시에 있어 음악활동의 주요 특성과 음악 논거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되는데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준다(Lee & Kim, 2016; McDermott et al., 2013; Wang, 2017). 특히 사용된 음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치료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논문에서 대중음악과 민요의 활용에 대해 내담자의 선호를 사용 근거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치료 매체로서의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요성은 2차 분석에서 나타난 논거의 평가결과에서도 발견되는데, 목표와 음악활동의 연결이 일정수준으로 제시되기는 하나, 기술된 수준이나 내담자 특성에 초점을 맞춘 논

거의 제시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진단적 특성이나 중재 실행 내용에 대한 난이도와 목표 성취를 위한 내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결과로는 정확한 중재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없다(Chong, 2015; Kwon, 2009).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 시 노화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특성과 진단적 특성을 고려한 활동구성 및 논거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친숙성과 선호도는 목표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재를 필요로 하는 대상군의 진단적 특성이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중재효과의 검증에 제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Lee & Kim, 2016) 선곡의 첫 번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심리 사회적 목표영역 이외에는 목표기능영역의 음악적용 원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한 음악중재 구성을 통해 차별화된 음악치료 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지재활 음악중재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음악의 구조나 친숙성, 가사의 유무 등 음악의 다양한 특성이 중재전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거 활용은 향후 치매노인 대상 인지재활 음악중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McDermott et al., 2013). 음악치료에서 음악 요소에 대한 근거는 음악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Chong, 2015; Robb et al., 2011), 노인 대상 음악치료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음악 요소에 따른 논거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점을 바탕으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에서는 중재 논거 기술 적절성의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 중재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중재 타당성과 치료논거 기술의 적절성을 보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문제에 부합하는 연구만을 선정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하여 동등한 학문적 질을 갖춘 정보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분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에서 노인의 선호도와 친숙성을 근거로 한 선곡보다는 음악의 요소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재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목표 변인의 변화를 위한 음악요소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음악요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구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진단명을 반영한 음악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일한 음악중재내용도 목표영역과 진단적 특성이 달라지면 제시되는 논거가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중재 제공자의 전문성과 각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 대상 음악중재에서 목표영역에 따른 제시된 활동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평가틀의 개발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더욱 질 높은 노인 대상 음악중재연구로 발전시켜 고령화 시대에서 음악이 보다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노인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논거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포함연구들의 질평가나 이론적 분석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제외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반적 질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한 부분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평가자간 신뢰도 및 주제전문성을 반영한 평가자 참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학문발전과 노인대상 음악치료 임상 전문성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연구의 실행과 분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Choi, H. K. (2016).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Seoul: Hakjisa.
 [최해경 (201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Chong, H. J., Lim, J. H., & Hwang, S. Y. (2018). Review of studies using a rhythm task intervention and the rationale for its formulation.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1), 95-118.
 [정현주, 임정현, 황수연 (2018). 국내 리듬 중재 연구의 중재 구성 및 논거에 대한 고찰.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1), 95-118.]
- * Jung, Y. R. (2015). Effects of song discussion on depression and rehabilitation motivation in stroke patient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2(1), 43-64.
 [정용라 (2015). 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2(1), 43-64.]
- Kim, H. J. (2014). *A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for adults and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김현주 (2014). **성인·노인 음악치료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Kim, H. J., & Jung, J. W.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apy with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3), 19-38.

- [김현정, 정재원 (201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9-38.]
- * Kim, H. Y., & Kang, Y. J. (2019).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music therapy program through song autobiography for elderly christia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30(1), 105-129.
- [김현영, 강연정 (2019). 기독교여성노인을 위한 노래자서전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105-129.]
- Kwon, J. I. (2009). *Analysis of the tendency of research of Korean master's thesis about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1998-2009)*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권정인 (2009). 노인 대상 음악치료의 국내 석사학위논문 연구동향 분석(1998-2009년): 석사논문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Kim, H. J., & Jung, J. W.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apy with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3), 19-38.
- [김현정, 정재원 (2013).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3), 19-38.]
- Lee, S. E. (2019). An analysis of music intervention stud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Korea.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6(1), 1-24.
- [이승은 (2019). 국내 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중재연구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6(1), 1-24.]
- Lee, Y. B. N., & Kim, S. J. (2016). The use of music for healthy elderly: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4), 335-346.
- [이예빛나, 김수지 (2016). 건강한 노화를 위한 음악활용: 국내·외 연구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335-346.]
- McDermott, O., Crellin, N., Ridder, H. M., & Orrell, M. (2013). Music therapy in dementia: A narrative synthesis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8(8), 781-794.
- Robb, S. L., Carpenter, J. S., & Burns, D. S. (2011). Reporting guidelines for music-based intervention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2), 342-352.
- * Shin, M. H., & Kang, K. S. (2016). The effect of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with MIDI keyboard on hand function in elderly patients with stroke hemiplegia.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1), 123-136.

[신미희, 강경선 (2016). MIDI 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 편마비 노인환자의 손기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3(1), 123-136.]

Statistics Korea (2018). Statistics for the aged in 2018.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0779

[통계청 (2018). 2018년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0779에서 인출]

Wang, Y. J. (2017).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왕유진 (2017).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게재신청일: 2019. 09. 10.
- 수정투고일: 2019. 11. 05.
- 게재확정일: 2019. 11. 19.

Therapeutic Rationale for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Older Adults: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Kim, Ji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literature on music interventions with older adults and to analyze the rationale for the type of intervention and type of music selected. A search of KCI journals for research including older adults and music-based interventions identified 33 published articles, and 23 of these studies met the criteria for inclusion in this analysis. Included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interven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tionale reported for selecting the intervention and music. Each study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relevance of the reported rationale to target go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of the included studies incorporated a variety of activities but failed to include a valid rationale for using those activities to achieve the target goals. Also, many of the studies tended to select music based on participants' preferences or perceived familiarity without thorough consideration of the therapeutic function of music in the given intervention. This study presents how music therapy interventions with older adults have been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attention to the selection of the intervention and presented music. There remains a need to delineate which intervention and music characteristics should be utilized to obtain particular outcomes with specific populations.

Keywords : older adults, music intervention, therapeutic rationale, review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Music Therapist, Artgiver Social cooperatives,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wlgus12022@naver.com)

<Appendix 1> 분석대상연구 목록

| 번 호 | 저자 (년도) | 제목 | 학술지명 | 진단명 | 평균 연령 (세) |
|--------|-----------------|---|-------------|------------|-----------------|
| 1 | 최애나 외 (2007) | 집단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정서, 삶의 질 및 정신행동증상에 미치는 효과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치매 | 74.9 |
| 2 | 윤영지 (2008) | 악기 연주를 사용한 인지훈련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 치매 | 78 |
| 3 | 이순화 외 (2008) | 음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노인복지연구 | 뇌졸중 | 74.2 |
| 4 | 정용 외 (2009) | 음악을 활용한 집단회상프로그램이 입원노인의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임상간호연구 | 노인성 질환 | 78.5 |
| 5 | 최애나 외 (2009) | 노래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회상 요법이 노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MCI | 79.8 |
| 6 | 홍영규 외 (2009) | 음악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 노인간호학회지 | 치매 | 65-80 |
| 7 | 서경희 (2010) | 선후창 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 비임상 대상군 | 78.4 |
| 8 | 최애나 외 (2010) | 음악치료 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비임상 대상군 | 67-91 |
| 9 | 김천사 (2011) | 판소리 창작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독거노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관한 연구: 성음을 중심으로*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 비임상 대상군 | 74 |
| 10 | 이경진 외 (2011) |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시설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비임상 대상군 | 80.5 |
| 11 | 전희운 외 (2011) | 음악요소와 노래 부르기를 활용한 호흡 및 구강훈련이 정상노인의 음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비임상 대상군 | 73.9 |
| 12 | 윤옥중 외 (2012) | 연하장애 위험 여성노인의 노래중재 적용 효과 | 성인간호학회지 | 비임상 대상군 | 66.4 |
| 13 | 권서령 외 (2013) | 민요와 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 예술심리치료연구 | 치매 | 81.4 |
| 14 | 김두연 외 (2013) |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기분상태 및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 MCI | 60-90 |
| 15 | 김현정 외 (2013) |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경도치매노인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치매 | 80.7 |
| 16 | 박정희 외 (2013) | 독거노인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트로트와 민요를 이용한 노래회상음악치료의 비교 연구* | 노인복지연구 | 비임상 대상군 | 76.6 |

주. * = 2차 분석 대상 연구, ** = 논거 기술 평가 상위 연구

<Appendix 1> 계속

| 번 호 | 저자 (년도) | 제목 | 학술지명 | 진단명 | 평균 연령 (세) |
|--------|-----------------|--|---------------------|------------|-----------------|
| 17 | 송현주 외 (2013) |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 노인의 인지훈련을 위한 철크기법 적용 연구* | 한국노년학 | 치매 | 70.1 |
| 18 | 김현정 (2014) | 노인 우울증재를 위한 국악치료프로그램 개발* | 인문과학연구 | 비임상 대상군 | 65-79 |
| 19 | 송백윤 외 (2014) | 국악을 이용한 집단음악치료가 주간보호시설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비임상 대상군 | 69-92 |
| 20 | 김하얀 외 (2015) | 이야기를 활용한 회고적 집단음악치료가 시설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비임상 대상군 | 65-90 |
| 21 | 신보영 외 (2015) | 시각적 지원 전략을 적용한 음악활동이 치매노인의 인지 기능 재화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치매 | 80.2 |
| 22 | 이하나 외 (2015) | 회고적 노래만들기가 시설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노인성 질환 | 65-90 |
| 23 | 정용라 (2015) | 노래 가사 토의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재활동기에 미치는 효과**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 뇌졸중 | 67.5 |
| 24 | 신미희 외 (2016) | MIDI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 편마비 노인환자의 손기능에 미치는 영향** | 재활심리연구 | 뇌졸중 | 69.5 |
| 25 | 이미경 외 (2016) | 마인드맵을 활용한 노래중심 음악치료활동이 시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치매 | 65 이상 |
| 26 | 허고은 외 (2016) | 치료적 가창훈련이 뇌졸중 노인 환자의 음성 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 뇌졸중 | 76.2 |
| 27 | 박경호 외 (2017) | 민요 중심 음악치료가 독거노인의 우울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 인문과학연구 | 비임상 대상군 | 75-84 |
| 28 | 백승영 (2017) | 노래중심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의 행복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인문사회21 | 비임상 대상군 | 60-80 |
| 29 | 조호균 외 (2017) | 음악중재에 의한 인지기능 손상이 환자이 연하관련 신체기능 및 연하장애 증상의 변화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 학회논문지 | 외상성 뇌손상 | 82 |
| 30 | 주민애 외 (2017) | 국악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치매노인의 상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치매 | 68.8 |
| 31 | 남지영 외 (2018) | 악기 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치매 의심 노인의 인지 기능, 노인우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예술심리치료연구 | 비임상 대상군 | 81.5 |
| 32 | 윤영미 외 (2018) | 노래자서전 음악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 예술심리치료 | 비임상 대상군 | 83.1 |
| 33 | 김현영 외 (2019) | 기독교여성노인을 위한 노래자서전 음악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비임상 대상군 | 70-85 |

주. * = 2차 분석 대상 연구, ** = 논거 기술 평가 상위 연구

<Appendix 2> 1차 분석 세부내용

| 번호 | 저자(연도) | 연구자 분야 | 연구 참여자 | | | 연구설계 |
|----|-------------|--------|---------|----------|----------|------|
| | | | 진단명 | 평균연령(세) | 참여자수(n명) | |
| 1 | 최애나 외(2007) | 음악치료 | 치매 | 74.9 | 20 | 실험통제 |
| 2 | 윤영지(2008) | 음악치료 | 치매 | 78 | 30 | 실험통제 |
| 3 | 이순화 외(2008) | 간호학 | 뇌졸중 | 74.2 | 25 | 실험통제 |
| 4 | 정용 외(2009) | 간호학 | 노인성질환 | 78.5 | 52 | 실험통제 |
| 5 | 최애나 외(2009) | 음악치료 | 경도인지장애 | 79.5 | 13 | 단일집단 |
| 6 | 홍영규 외(2009) | 간호학 | 치매 | 65-80 이상 | 32 | 실험통제 |
| 7 | 서경희(2010) | 음악치료 | 비임상 | 78.4 | 28 | 실험통제 |
| 8 | 최애나 외(2010) | 음악치료 | 비임상 | 67-91 | 12 | 단일집단 |
| 9 | 김천사(2011) | 음악치료 | 비임상 | 74 | 6 | 단일집단 |
| 10 | 이경진 외(2011) | 음악치료 | 비임상 | 80.5 | 12 | 실험통제 |
| 11 | 전희운 외(2011) | 음악치료 | 비임상 | 73.9 | 27 | 실험통제 |
| 12 | 윤옥중 외(2012) | 간호학 | 비임상 | 66.4 | 29 | 단일집단 |
| 13 | 권서령 외(2013) | 음악치료 | 치매 | 81.4 | 34 | 실험통제 |
| 14 | 김두연 외(2013) | 음악치료 | 경도인지장애 | 60-90 | 16 | 실험통제 |
| 15 | 김현정 외(2013) | 음악치료 | 치매 | 80.7 | 20 | 실험통제 |
| 16 | 박정희 외(2013) | 음악치료 | 비임상 | 76.6 | 28 | 실험통제 |
| 17 | 송현주 외(2013) | 음악치료 | 치매 | 70.1 | 18 | 실험통제 |
| 18 | 김현정(2014) | 음악치료 | 비임상 | 65-79 | 20 | 실험통제 |
| 19 | 송백운 외(2014) | 음악치료 | 비임상 | 96-92 | 17 | 실험통제 |
| 20 | 김하얀 외(2015) | 음악치료 | 비임상 | 65-90 | 16 | 실험통제 |
| 21 | 신보영 외(2015) | 음악치료 | 치매 | 80.2 | 34 | 실험통제 |
| 22 | 이한나 외(2015) | 음악치료 | 노인성질환 | 65-90 | 17 | 실험통제 |
| 23 | 정용라(2015) | 음악치료 | 뇌졸중 | 67.5 | 17 | 실험통제 |
| 24 | 신미희 외(2016) | 음악치료 | 뇌졸중 | 69.5 | 4 | 사례연구 |
| 25 | 이미경 외(2016) | 음악치료 | 치매 | 65 이상 | 21 | 실험통제 |
| 26 | 허고은 외(2016) | 음악치료 | 뇌졸중 | 76.2 | 13 | 실험통제 |
| 27 | 박경호 외(2017) | 음악치료 | 비임상 | 75-84 | 16 | 실험통제 |
| 28 | 백승영(2017) | 음악치료 | 비임상 | 60-80 | 40 | 단일집단 |
| 29 | 조호균 외(2017) | 작업치료 | 외상성 뇌손상 | 82 | 1 | 사례연구 |
| 30 | 주민애 외(2017) | 음악치료 | 치매 | 68.8 | 13 | 단일집단 |
| 31 | 남지영 외(2018) | 음악치료 | 비임상 | 81.5 | 20 | 실험통제 |
| 32 | 윤영미 외(2018) | 음악치료 | 비임상 | 83.1 | 16 | 실험통제 |
| 33 | 김현영 외(2019) | 음악치료 | 비임상 | 70-85 | 30 | 실험통제 |

<Appendix 3> 2차 분석 세부내용

| 번호 | 저자(연도) | 중재장소 | 세션정보 | | | 목표영역 | 활동내용 | 사용음악 |
|----|-------------|------------|------|--------|-------|-------|------|------|
| | | | 형태 | 회기수/주기 | 시간(m) | | | |
| 1 | 최애나 외(2009) | NR | 그룹 | 12/2 | 50 | 정서 | 복합 | 대중가요 |
| 2 | 서경희(2010) | NR | 그룹 | 12/1-2 | 40 | 정서/사회 | 복합 | 민요 |
| 3 | 김천사(2011) | NR | 그룹 | 13/2 | 50 | 정서 | 복합 | 국악 |
| 4 | 이경진 외(2011) | NR | 그룹 | 10/3 | 40 | 정서 | 연주 | NR |
| 5 | 전희운 외(2011) | NR | 그룹 | 4/1 | 25 | 언어 | 가창 | 복합 |
| 6 | 김두연 외(2013) | NR | 그룹 | 12/2 | 50 | 정서 | 복합 | 복합 |
| 7 | 김현정 외(2013) | 시설 내 프로그램실 | 그룹 | 16/2 | 40 | 정서 | 복합 | 국악 |
| 8 | 박정희 외(2013) | 복지기관 다용도실 | 그룹 | 12/2 | 50 | 정서 | 복합 | 복합 |
| 9 | 송현주 외(2013) | 센터 | 개인 | 10/2 | 30 | 인지 | 가창 | 기타 |
| 10 | 김현정(2014) | 시설 내 프로그램실 | 그룹 | 16/2 | 40 | 정서 | 복합 | 국악 |
| 11 | 송백운 외(2014) | NR | 그룹 | 15/1-2 | 50 | 인지/정서 | 연주 | 국악 |
| 12 | 김하얀 외(2015) | NR | 그룹 | 12/2 | 50 | 정서 | 복합 | 복합 |
| 13 | 신보영 외(2015) | NR | 그룹 | 10/1 | 30-35 | 인지 | 복합 | 대중가요 |
| 14 | 이한나 외(2015) | NR | 그룹 | 15/1 | 50 | 정서 | 복합 | 복합 |
| 15 | 정용라(2015) | 독립된 공간 | 그룹 | 12/2 | 50 | 정서 | 가사토의 | 대중가요 |
| 16 | 신미희 외(2016) | 병원 | 개인 | 21/3 | 30 | 신체 | 연주 | 복합 |
| 17 | 이미경 외(2016) | NR | 그룹 | 16/2 | 50 | 인지 | 복합 | 복합 |
| 18 | 허고은 외(2016) | NR | 개인 | 10/2 | 30 | 언어/정서 | 가창 | 복합 |
| 19 | 박경호 외(2017) | 센터 내 강의실 | 그룹 | 12/2 | 45 | 정서 | 복합 | 민요 |
| 20 | 주민애 외(2017) | NR | 그룹 | 12/4 | 40 | 신체 | 복합 | 복합 |
| 21 | 남지영 외(2018) | NR | 그룹 | 12/1 | 40 | 인지/정서 | 연주 | 대중가요 |
| 22 | 윤영미 외(2018) | 노인복지관 | 그룹 | 12/2 | 50 | 정서 | 복합 | 대중가요 |
| 23 | 김현영 외(2019) | NR | 그룹 | 12/2 | 90 | 정서 | 복합 | 복합 |

주. NR = 보고되지 않음

<Appendix 4> 평가 상위 연구 내 음악장르 선택기준 논거 기술 내용

| 목표 영역 | 저자 (년도) | 세부 목표 | 활동 형태 | 음악 장르 | 장르선택 논거 기술 내용 | 핵심 단어 | 분석 결과 (장르 선택 기준) |
|-------|--------------|------------|------------|-------|---|---------------|--|
| 신체 | 신미희 외 (2016) | 손 기능 | 연주 | 동요 | - 대상자에게 익숙한 동요를 활용함. - 이를 통해 신체적 반응을 예측 하도록 하고 촉진 시킴. | 익숙함, 반응 예측 | - 음악 외적요소(친숙성)에 따라 장르 선택함. - 동요의 친숙함에 따른 연주활동 이점을 기술함. |
| | 이경진 외 (2011) | 우울, 자아 존중감 | 연주 | 음악 요소 | - 음악요소(리듬, 다이내믹, 템포 등)은 그룹원간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함. - 이를 통해 신체적 움직임 조절 및 정서의 안정 제공함. - 템포의 변화를 활용하여 에너지 상승 및 감정발산, 정서 변화를 유도함. | 음악요소, 청각적 피드백 | - 음악 내적요소(음악요소)에 따라 장르 선택함. - 다양한 음악요소에 따른 연주활동 이점과 유도되는 정서 변화를 기술함. |
| 정서 | 김현정 외 (2013) | 우울, 삶의 질 | 감상, 동작, 연주 | 국악 | - 노인세대는 서양음악에 대한 학습기회가 적음 -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정서에 친숙한 국악 활용함 | 문화특성, 친숙함 | - 음악 외적요소(친숙성)에 따른 장르 선택함 - 국악음악에 따른 음악활동 이점을 기술하지 않음 |
| | 정용라 (2015) | 우울, 재활 동기 | 가사 토의 | 대중 가요 |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곡함 - 대상자의 20대 시절 들었던 대중가요 선곡함 | 선행연구, 20대 시절 | - 음악 외적요소(선호도)에 따른 장르 선택함 -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선호하는 대중가요에 따른 가사토의 활동 이점을 기술함 |
| | 윤영미 외 (2018) | 자아 통합감 | 감상, 가창, 창작 | 대중 가요 | - 노인 대상자에게 친숙한 노래 선곡함 - 곡의 긍정적 가사특징을 활용하여 과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과 자아통합감에 영향 제공함 | 친숙함, 긍정적 가사 | - 음악 외적요소(친숙성)에 따른 장르 선택함 - 대중가요의 가사적 특징에 따른 음악활동 이점을 기술함 |